

대전대덕구
국회의원
박정현

국정감사 보도자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의원회관 333호
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199, 우농빌딩 2층

자료문의 : 02-784-2537-8 / 02-6788-6395 (FAX)



더불어
민주당

배포일자

2024년 10월 16일(수)

배포 즉시 보도 가능

담당자

박정현 의원실
(02-784-2538)

[국정감사] 박정현 의원, 오세훈 서울시장에 명태군씨 고소와 TBS 정상화 촉구

-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5일차, 서울시, 서울경찰청 대상 국정감사 실시
 - “국정감사는 국민의 궁금증 풀어내는 자리. 오세훈 시장, 명태군 서둘러 고소해 진실 밝혀야 해”
 - ‘서울경찰청의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’, ‘명태군 게이트’ 정권 눈치 안보는 공정한 수사 필요
-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(대전 대덕구, 국회 행정안전위원회)은 15일(화),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. 이날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‘명태군 리스크’ 해소를 주문하는 한편, 서울경찰청에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.
- 박 의원은 서울시의 첫 국정감사 질의로, 명태군 리스크 해소를 촉구했다. 최근 여권과 대통령실을 향한 명태군씨의 발언을 두고, 오세훈 시장과 모종의 사건이 있었다는 명태군씨의 주장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고, 이에 오세훈 시장은 명태군씨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.
- 이에 박정현 의원은 “거물 정치인 모두가 명태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누구도 고소·고발은 하지 않고 있다”며 고소·고발을 통한 수사필요성을 강조했다. 동시에 오세훈 시장을 향해 “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냐” 물었으나, 오세훈 시장은 고소장은 작성했다고 하였으나 언제 제출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.
- 이어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장에게 질의를 이어갔다.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TBS 폐국을 밀어붙

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.

- 이에 송지연 지부장은 “(방송사 폐국을) 정치인 기준에서 (보면) EBS 말고 살아남을 방송사는 없다. TBS가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소식을 전했던 역할을 생각하면, TBS 폐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” 라고 말하면서 TBS 폐국의 부당함을 말했다. 더불어 “TBS 구성원들이 다시 예전처럼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” 라며, TBS 구성원들의 염원을 국회의원들에게 전했다.
- 끝으로, 박 의원은 ▲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민간매각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살필 것과 ▲서울시설공단, SH, 서울에너지공사의 RE100 비율이 낮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더하여 ▲성인지예산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였다.
- 서울시 국정감사에 이어 시작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경찰청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.
- 박 의원은 “ ‘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’ 고발 건이 9개월 동안 멈춰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” 이라면서 “조속한 시일 내에 피고발인 조사가 필요하다” 라고 말하였다. 또한, “서울청에 접수된 명태균씨 고발 건을 수사할 땐 원칙에 맞게 김건희 여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해야 한다” 라고 말하며 서울경찰청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.
- 이에 대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“절차에 맞게 공정한 수사를 할 것” 이라고 답하였다.
-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7일(목요일)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. //끝.